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적응 유연성

신 성 희* · 김 윤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이혼율의 증가,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이혼율의 증가는 1990년대 이후에 폭발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일부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자료(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1980년에는 2만 3천여 건이었던 이혼건수가 2003년에는 16만 7천 건으로 20년 만에 일곱 배가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이혼숙려기간 시범도입 등으로 조이혼율이 2003년의 3.5건보다 0.6건 감소한 2.9건으로 이혼과열 양상이 다소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 65.5%가 성장기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어 한 해 14만 명 이상의 자녀가 부모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에 의한 편부모가정의 증가를 수반하고 아울러 재혼율의 증가를 초래하여 계부모가정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1994년에 전체 혼인의 9.1%를 차지하던 재혼율이 2004년에 20.4%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1994년에 전체 혼인의 9.2%를 차지하던 것이 2004년에 18.2%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 남성과 여성 모두 2000년에서 2001년까지 1년 사이에 재혼율이 평균 1.8%, 2001년에서 2002

년까지 1년 사이의 재혼율이 0.8%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루어 보아 앞으로 상당기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부모의 이혼과 재혼은 아동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부모이혼으로 한 부모와만 살게 되고, 새로운 역할부담이 생기거나, 이사나 전학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이들 자녀들은 타의에 의해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다는데 더욱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이혼으로 발생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것은 아동에게 큰 스트레스이다(주소희, 2003).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이혼자녀를 바라보는 또래나 그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은 이혼가정 자녀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실제보다 더 나쁘게 평가되고 다루어짐으로써 그러한 평가를 받는 개인의 사고에게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통념은 TV, 전래동화, 신문방송매체에 반영되어 전달되며 이는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이혼자녀와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 부적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전숙영, 1996).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갖게 되는 문제를 가족 또는 친척들 그리고 친구에게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헤어짐보다 더 싫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정작 부모의 이혼 자체가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에 겪게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되는 애정결핍과 상실감, 소외감, 그리고 이혼가정을 보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예리, 2002). 고성혜, 한유진(1995)은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연구에서 편모가정의 정서적 유대감이 양부모 가정에 비해 나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실제 모습에 상관없이 구조적인 결혼자체가 곧 문제행동의 원인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개인의 발달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는 우리 문화권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결과였다. 즉 사회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이 그 사건에 접한 당사자들의 적응에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은 1990년 초기 이혼한 성인이 겪게 되는 다양한 실제적, 정서적 문제를 다루던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깊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이혼에 대한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혼가정 자녀들이 스스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이혼이라는 가정의 위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혼과 재혼이라는 가정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적응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증재프로그램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남영옥, 김재한, 2003; 박지아, 유성경, 2003; 박현선, 1998).

이에 본 연구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학령기 아동들의 일차적인 지각 경향과 부정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아동의 회복능력인 적응 유연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지각과 적응 유연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중 학교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심하는 초등교육 관련자, 보건교사, 상담가 및 연구자들에게 이혼 및 재혼 가정 자녀의 원만한 상호작용과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동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 어떠한 지각 양상을 보이며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밝히고, 적응 유연성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성별, 학년에 따른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경향을 파악한다.

- 2) 성별, 학년에 따른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경향을 파악하고 남성 재혼과 여성 재혼에 대한 지각 차이를 분석한다.
- 3) 성별, 학년에 따른 아동의 적응 유연성을 파악한다.
- 4)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경향과 적응 유연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지각

이혼 및 재혼에 관한 지각이란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지향하는 가치관 및 관념, 신념 등을 말한다(박찬미, 서병숙, 1987). 본 연구에서는 전숙영(1996)이 개발한 이혼·재혼에 대한 지각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과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응 유연성

적응 유연성(resilience)이란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향 받으며, 유능감(efficacy)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Luthar, 1991)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지영(2002)이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회적 유능감, 자신에 대한 지각, 목표의식의 하위범주를 측정할 것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에 따른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학령기 아동들의 지각 경향과 적응 유연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N시에 위치한 인근의 3개 초등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4, 5, 6학년 각각 2개 학급의 아동 총 5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적으로 결혼 10년 이후의 부부 이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4, 5, 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지각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지각 질문지는 전숙영(1996)이 개발한 이혼·재혼에 대한 지각척도이다. 이는 이혼에 대한 지각 14문항, 재혼에 대한 지각 21문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에 대한 문항은 자녀유무(2문항), 경제력(4문항), 사랑(2문항), 또래관계(4문항), 이혼시기(2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 재혼에 대한 문항은 자녀유무(4문항), 경제력(4문항), 사랑(4문항), 또래관계(4문항), 재혼시기(2문항), 계부모의 시각(1문항), 편견(2문항)의 7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전숙영의 연구에서의 이혼에 대한 지각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68, 재혼에 대한 지각은 Cronbach alpha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Cronbach alpha .68, .70 이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과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2) 적응 유연성

적응 유연성(resilience)이란 아동을 긍정적인 적응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의 수준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산하에 있는 West Ed에서 개발된 Healthy Kids Resilience Assessment를 사용하여 서지영(2002)이 초등학교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외적 보호요인과 유연성 특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적 산물이나 유연성의 특성으로서 사회적 유능감 9문항, 자신에 대한 지각 6문항, 목표의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의 4점 척도이다. 서지영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84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조사는 2005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일 지역 내 공립초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4학년 189명, 5학년 175명, 6학년 173명 총 537명을 임의 표출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 또는 교사가 질문지의 응답 요령 및 지시사항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질문지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각 학교 4, 5, 6학년의 2학급을 선정하여 총 570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한 자료 33부를 제외하고 53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적응유연성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지각의 전반적인 경향과 하위 영역별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성별, 학년 및 기타 특성에 따른 이혼과 재혼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로는 남학생 53.3%, 여학생 49.7%, 학년별로는 4학년 35.2%, 5학년 32.6%, 6학년 32.2%로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대상자 부모의 학력은 대졸이 각각 49.3%, 59.6%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고졸이상으로 학력수준이 높았다. 부모의 직업유무에 있어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절반(47.3%)에 가까웠으며, 대상자 대부분(94.4%)이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80.1%가 만족스러워했으며, 가정형편도 대부분(97.1%)이 중간이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혼 및 재혼한 친인척 유무에 대해 17.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분석 시 선행연구에서 부모 이혼과 재혼에 대한 청소년 및 대학생의 경우 그 지각 정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남녀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동질한 지를 검증한 후 비교분석하였다. 검증한 결과 남녀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동질하게 나타났다($\chi^2=1.69, p=.429$).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혼과 재혼에 관한 아동의 지각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혼·재혼한 친인척 유무에서만 이혼·재혼한 친인척 있는 경우(1.96±.27)가 모르거나(1.90±.23) 없다고 응답한 경우(1.88±.25)보다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15, p=.044), 그 외의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2. 성별, 학년에 따른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경향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경향 차이를 성별, 학년별로 검증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37

특 성	구 분	남 자 (%)	여 자 (%)	계
학년	4학년	102(37.8)	87(32.6)	189(35.2)
	5학년	86(31.9)	89(33.3)	175(32.6)
	6학년	82(30.4)	91(34.1)	173(32.2)
부 학력	중졸 이하	7(2.6)	5(1.9)	12(2.2)
	고졸	51(18.9)	39(14.6)	90(16.8)
	대졸	133(49.3)	159(59.6)	292(54.4)
	대학원이상	72(26.7)	59(22.1)	131(24.4)
	무응답	7(2.6)	5(1.9)	12(2.2)
모 학력	중졸 이하	6(2.2)	3(1.1)	9(1.7)
	고졸	71(26.3)	77(28.8)	148(27.6)
	대졸	135(50.0)	156(58.4)	291(54.2)
	대학원이상	52(19.3)	27(10.1)	79(14.7)
	무응답	6(2.2)	4(1.5)	10(1.9)
부 직업 유무	무	12(4.4)	12(4.5)	24(4.5)
	유	256(94.8)	250(93.6)	506(94.2)
	무응답	2(0.7)	5(1.9)	7(1.3)
모 직업 유무	무	140(51.9)	140(52.4)	280(52.1)
	유	127(47.0)	127(47.6)	254(47.3)
	무응답	3(1.1)	0(0.0)	3(0.6)
가족구성형태 (부모)	친부모	252(93.3)	255(95.5)	507(94.4)
	친모	3(1.1)	7(2.6)	10(1.9)
	친부	3(1.1)	1(0.4)	4(0.7)
	친모+계부	1(0.4)	0(0.0)	1(0.2)
	친부+계모	5(1.9)	1(0.4)	6(1.1)
	기타	4(1.5)	0(0.0)	4(0.7)
	무응답	2(0.7)	3(1.1)	5(0.9)
가족관계 만족 여부	만족	217(80.4)	213(79.8)	430(80.1)
	보통	47(17.4)	46(17.2)	93(17.3)
	불만족	4(1.5)	6(2.2)	10(1.9)
지각된 가정형편	무응답	2(0.7)	2(0.8)	4(0.7)
	상	123(45.6)	97(36.3)	220(41.0)
	중	138(51.1)	163(61.1)	301(56.1)
	하	6(2.2)	5(1.9)	11(2.1)
이혼·재혼한 친족 유무	무응답	3(1.1)	2(0.8)	5(0.9)
	무	149(55.2)	141(52.8)	290(54.0)
	모름	80(29.6)	67(25.1)	147(27.4)
	유	39(14.4)	57(21.4)	96(17.9)
	무응답	2(0.7)	2(0.8)	4(0.7)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이혼에 관한 아동의 지각차이는 전체 이혼에 관한 지각점수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하위영역에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사랑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t=-2.72, p=.007$), '이혼을 하려면 자식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해야 한다'라는 이혼시기 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보였다

($t=2.01, p=.044$). 또한 각 하위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경향 순위를 보면 남녀 각각 사랑(2.25±.61, 2.40±.64), 또래관계(2.00±.48, 2.06±.52), 이혼시기(1.84±.54, 1.74±.57), 자녀유무(1.72±.52, 1.71±.59) 경제력 영역(1.72±.41, 1.68±.42) 순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부간에 사랑이 없을 경우의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이상하게 보거나 비웃거나 흉보지는 않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영역보다 부

<표 2> 성별, 학년별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 검증

N=537

		자녀유무		경제력		사랑		또래관계		이혼시기		전체 이혼지각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성별	남	1.72±.52		1.72±.41		2.25±.61		2.00±.48		1.84±.54		1.90±.24	
	여	1.71±.59		1.68±.42		2.40±.64		2.06±.52		1.74±.57		1.91±.27	
	t	.19		1.11		-2.72		-1.37		2.01		-.36	
	p	.849		.266		.007*		.172		.044*		.718	
학년	4	1.67±.55		1.71±.41	AB	2.21±.63	BB	2.06±.47		1.76±.55		1.89±.25	B
	5	1.74±.56		1.64±.41	BB	2.34±.66	AB	2.00±.55		1.78±.56		1.87±.26	B
	6	1.73±.56		1.76±.42	AA	2.43±.58	AA	2.07±.48		1.82±.57		1.95±.24	A
	F	.90		3.55		5.49		2.12		0.37		5.42	
	p	.406		.029*		.004**		.120		.688		.005**	

*p <.05 ** p <.01

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이혼에 대한 지각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이혼 지각 점수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5.42, p=.005), 사후 검증한 결과 6학년이 4학년, 5학년에 비해 이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부영역의 경제력 영역에서 4학년에 비해 6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55, p=.029), 이는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면 그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랑 영역에서도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5.49, p=.004), 사후 검증한 결과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사랑이 없는 부부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3.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경향

1) 성별, 학년별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차이

성별, 학년별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차이는 <표 3>과 같다. 전체 재혼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85, p=.005). 하위영역인 자녀유무(t=-3.28, p=.001), 또래관계(t=-3.21, p=.001) 영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계부모지각 영역은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8, p=.001). 즉 '자녀가 있더라도 재혼을 할 수 있다'라고 여자가 남자보다 재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비웃거나 흉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여자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부나 계모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재혼에 대한 지각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재혼에 관한 지각 점수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하부영역인 자녀유무 영역과 경제력 영역에서는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검증한

<표 3> 성별, 학년별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 검증

		자녀유무		경제력		사랑		또래관계		재혼시기		편견		계부모 지각		전체 재혼지각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성별	남	2.22±.45		2.15±.47		2.00±.25		2.26±.53		2.19±.48		2.11±.31		1.79±.64		2.15±.24	
	여	2.35±.46		2.17±.52		2.00±.20		2.41±.59		2.18±.55		2.17±.33		1.61±.68		2.21±.25	
	t	-3.28		-.66		.00		-3.21		.20		-1.83		3.28		-2.85	
	p	.001**		.508		1.000		.001**		.838		.068		.001**		.005**	
학년	4	2.20±.43	B	2.11±.48	B	2.01±.21		2.36±.54		2.13±.50		2.11±.32		1.74±.68		2.15±.24	
	5	2.33±.49	A	2.25±.51	A	2.00±.24		2.31±.61		2.24±.51		2.18±.33		1.68±.69		2.21±.25	
	6	2.32±.43	A	2.13±.49	B	2.00±.22		2.33±.55		2.18±.52		2.13±.31		1.67±.64		2.17±.24	
	F	4.29		3.86		.28		.28		2.29		2.04		.67		2.37	
	p	.014*		.022*		.758		.756		.102		.131		.514		.095	

*p <.05 ** p <.01

결과 자녀유무 영역에서는 5,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자녀유무 관계없이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나타냈으며 ($F=4.29, p=.014$), 경제력 영역에서 5학년이 4, 6학년에 비해 남편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 경향을 나타냈다($F=3.86, p=.022$).

2) 남성 재혼과 여성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

남성 재혼과 여성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성의 재혼에 대한 지각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재혼에 대한 지각 점수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나타냈다($t=-3.35, p=.001$). 하위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자녀유무($t=-2.74, p=.006$), 사랑($t=-3.20, p=.001$), 또래관계 영역($t=-2.72, p=.007$)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지각 경향을 보였다. 즉 혼자 사는 남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 없이 재혼을 할 수 있고, 혼자 사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면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각하며,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영역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재혼에 대한 지각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재혼에 관한 지각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49, p=.001$). 하위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자녀유무($t=-3.31, p=.001$), 또래관계($t=-3.03, p=.003$), 편견 영역($t=-3.87, p=.000$)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긍정적인 지각 경향을 보였고, 사랑 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47, p=.001$). 즉 혼자 사는 여성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혼을 할 수 있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이며, 여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더라도 재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고상하고 깨끗해 보이므로 재혼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영역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혼자 사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면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사랑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의 재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재혼보다 남성의 재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남성의 재혼에 대한 편견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의 재혼에 대한 편견에는 여자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어 남녀의 지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동의 적응 유연성

아동의 적응 유연성의 차이를 성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적응 유연성 차이 검증에서, 전체 적응 유연성 점수는 남자($2.81\pm.47$)에 비해 여자($3.02\pm.4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5.27, p=.000$). 하부영역인 사회적 유능감($t=-6.07, p=.000$), 자신에 대한 인식($t=-2.22, p=.027$), 목표의식($t=-4.14, p=.000$)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년에 따른 아동의 적응 유연성의 차이검증에서, 전체 적응 유연성 점수는 4학년($3.00\pm.48$), 5학년($2.94\pm.46$), 6학년($2.82\pm.43$)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응 유연성 정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55, p=.002$).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 집단간의 차이로 6학년이 4, 5학년에 비해 적응 유연성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부영역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F=9.66, p=.000$)과 목표의식($F=3.02, p=.049$) 영역에서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 집단 각각의 차이로 나타났고, 목표의식에서는 4학년, 5학년과 6학년과의 차이로 6학년이 4학년, 5

<표 4> 남성과 여성의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검증

N=537

내용	남성의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여성의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남(M±SD)	여(M±SD)	t	p	남(M±SD)	여(M±SD)	t	p
자녀유무	2.23±.50	2.35±.53	-2.74	.006**	2.20±.52	2.35±.51	-3.31	.001**
경제력	2.11±.53	2.14±.57	-.54	.589	2.18±.55	2.21±.59	-.62	.536
사랑	2.50±.62	2.67±.59	-3.20	.001**	1.51±.62	1.34±.55	3.47	.001**
또래관계	2.27±.57	2.41±.63	-2.72	.007**	2.25±.53	2.41±.62	-3.03	.003**
편견	2.07±.33	2.08±.33	-.35	.729	2.37±.48	2.53±.48	-3.87	.000**
전체 재혼지각	2.19±.28	2.27±.28	-3.35	.001**	2.17±.30	2.26±.29	-3.49	.001**

*p <.05 ** p <.01

<표 5> 아동의 적응 유연성 차이검증

N=537

		사회적 유능감		자신에 대한 인식		목표의식		적응 유연성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M±SD	사후 검증
성별	남	2.64±.52		2.92±.58		3.11±.72		2.81±.47	
	여	2.91±.48		3.02±.54		3.35±.60		3.02±.43	
	t	-6.07		-2.22		-4.14		-5.27	
	p	.000***		.027*		.000***		.000***	
학년	4	2.80±.54		3.09±.57	A	3.27±.71	A	3.00±.48	A
	5	2.83±.53		2.97±.55	B	3.28±.63	A	2.94±.46	A
	6	2.71±.47		2.83±.54	C	3.12±.66	B	2.82±.43	B
	F	2.57		9.66		3.02		6.55	
	p	.077		.000***		.049*		.002**	

*p <.05 * *p <.01*** p <.001

학년에 비해 목표의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이혼,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적응유연성과의 상관관계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아동의 적응 유연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사회적 유능감은 자신에 대한 인식(r=.533, p<.001), 목표의식(r=.383, p<.0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신에 대한 인식은 목표의식(r=.599, p<.001)과 유의한 수준에서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재혼에 관한 지각과 이혼에 관한 지각(r=.160, p<.001)간에 순상관성이 있으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적응 유연성과 이혼에 대한 지각과 재혼에 대한 지각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목표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으며 목표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재혼에 대한 지각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응 유연성이 높은 것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 학년에 따른 이혼 및 재혼에 관한 지각 정도와 적응 유연성 정도를 파악하고 적응 유연성에 따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지각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즉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 증가와 재혼율 증가에 따른 아동의 부정적인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아동의 환경적, 개인적 위험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동의 인식과 편견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완충 매개해주는 보호요소로 적응 유연성이 관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혼에 관한 아동의 지각점수는 남학생 평점 1.90점이었고 여학생은 1.91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전숙영(1996)의 연구결과인 초등학생 1.77보다는 높고, 고등학생 2.36 대학생 2.42보다 낮은 점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지각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보였고, 하위영역인 사랑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보여 남자보다 여자가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이라는 선행연구(김예리, 2002; 오은순, 1997; Bank, 1993; Hetherington, 1989)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이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어 이혼의 변화를 보다 실제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문제행동의 발생가능성이 낮고, 이혼 가정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

<표 6>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적응 유연성과의 상관관계

	적응 유연성			이혼에 대한 지각	재혼에 대한 지각
	사회적 유능감	자신에 대한 인식	목표의식		
사회적 유능감	1.00				
자신에 대한 인식	.533***	1.00			
목표의식	.383***	.599***	1.00		
이혼에 대한 지각	-.036	-.017	-.009	1.00	
재혼에 대한 지각	.087	.087	.077	.160***	1.00

***p <.001

된다. 또한 남녀 모두 하위영역 순위에서 사랑영역과 또래관계 영역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반면 경제력 영역에 낮은 순위를 나타내었는데 이 또한 선행연구결과(김예리, 2002; 전숙영, 1996)와 일치되는 부분으로 부부간에 사랑이 없을 경우의 이혼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며,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이상하게 보거나 비웃거나 흉보지는 않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가족을 유지시켜주고, 건강한 가족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즉 부부간의 사랑은 가족 사랑의 기본이 되며, 가족 내의 사랑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원천이 되는 만큼 이혼의 사유 중 사랑의 유무를 중시여기고 있기 때문이다(김예리, 2002; Burr et al., 1993). 더구나 가족의 기능 중 애정적인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결혼생활의 행복도 부부간의 사랑이 중시되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학년에 따른 이혼지각경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김예리, 2002; Garder, 1976; Kelly & Wallerstein, 1975)에서 보다 뚜렷한 결과를 보여,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 정서적 장애를 보이고(정진영, 1992; 전숙영, 1996; 주소희, 1991), 청소년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를 한 명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 각자와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기도 하며 훌륭한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Wallerstein et al., 1976). 즉 연령이 어릴수록 이혼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을 수용하기가 어려워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혼이라는 부정적 사건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면서 수용적으로 변화해 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혼은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성에 대한 편견에 그 근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학생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보다 융통적으로 되어가는 반면, 남학생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유가효, 1994)에 비추어 볼 때 연령증가에 따라 여학생이 이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지각을 한다고 해석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혼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부정적이며, 부모의 화해를 기대하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타인의 관점에서 이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 경험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더 이혼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이혼을 수용하며, 자신의 문제와 별개의 사건

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고학년은 이혼은 해서는 안되는 잘못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혼가정의 또래들과 교우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에 따른 선행연구와의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6학년이 4, 5학년에 비해 보다 현실적으로 이혼을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에 대한 지각은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창피함을 느껴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Wallerstein & Kelly, 1976)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후기에 있는 아동은 자기 자기지식에 대한 영역 중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관한 사회적 자아의 인지영역이 발달하는 시기로 또래관계에 매우 민감하나 과거에 비해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족구조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혼에 대한 지각경향은 이혼에 대한 지각보다 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여자가 더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자녀가 있더라도 재혼을 할 수 있다'라고 여자가 남자보다 재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비웃거나 흉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여자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부나 계모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혼이 관용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김예리, 2002; 김계향, 1991; 이동원, 1981)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도 재혼을 보다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은 이혼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지각하는 반면, 재혼은 이혼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긍정적인 사건(Burr et al., 1993)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 재혼과 여성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에서 남성의 재혼에 대한 지각경향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긍정적(전체 점수, 자녀유무, 사랑, 또래관계 영역)인데, 이 또한 선행연구(전숙영, 1996)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자녀유무 관계없이 남성의 재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없는 남성의 재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경제력 해결을 위한 재혼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 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 더 중요한 요인이며, 단지 경제력 해결을 위한 재혼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그 밖에 남성의 경제적 무능력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재혼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즉 혼자 사는 남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혼을 할 수 있고, 혼자 사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면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각하며,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영역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성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의 재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보이는 영역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없을 경우 이혼을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특히 아동은 이혼으로 인한 또래관계보다 재혼으로 인한 또래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이는 재혼가정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만연되어 있기는 하나 손상된 가정보다는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재혼을 통해 사랑, 재정상태의 긍정적 변화, 계부모의 영입 등 이혼이라는 부정적 사건의 종결로 본다고 해석된다(김예리, 2002; 전숙영, 1996; Burr et al., 1993). 따라서 손상된 가정 보다는 계부모 가정이 가지는 장점이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더 절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재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재혼에 대한 지각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재혼에 관한 지각 점수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이고 하위영역별로 자녀유무, 또래관계, 편견 영역에서 여자가 긍정적이나, 사랑 영역에서는 남자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즉 혼자 사는 여성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혼을 할 수 있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이며, 여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더라도 재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고상하고 깨끗해 보이므로 재혼을 안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영역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혼자 사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면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사랑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의 재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재혼보다 남성의 재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남성의 재혼에 대한 편견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의 재혼에 대한 편견에는 여자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어 남녀의 지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부모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이혼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나 재혼은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혼으로 형성된 계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숙영(199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계부모 지각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이유에 대해 청소년은 친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전래동화나 TV 등 매체의 영향,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의견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은 아직까지 전래동화, TV매체 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학생의 경우 전래동화, TV 등 매체의 영향, 사회의 부정적 인식, 교육의 영향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 친혈육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보다는 대학생이 계부가정에 대한 부정적 편견형성이 사회문화적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공인숙, 유안진, 1994)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아동의 경우는 이혼보다는 재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반면 계부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지각을 하여 일반적으로 재혼과 그에 따른 계부모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양립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의 적응 유연성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점이 없다는 선행연구(남영옥, 김제한, 2003; 배숙진, 1998; 권영숙, 2002)와는 상반된 결과로 선행연구들이 적응유연성을 상하위 25% 범위내로 고적응 집단과 저적응집단, 또는 적응 유연집단,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을 비교하였다는 점과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있어 고위험 요인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정상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년에 따른 아동의 적응 유연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응 유연성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남영옥, 김제한, 2003; 박현선, 1998)와 일치한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급학교로의 전환기에 있는 학년에서 겪는 학교 내 경쟁이나 공부 압력의 증가 등 부정적인 경험과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응 유연성이 뛰어난 아동일수록 부모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관계를 분석했으나 적응 유연성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지각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이나 재혼과 같은 요인을 위험요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인식과 목표의식, 사회적 유능감이 뛰어난 아동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지하지 않고 부모를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일로 지각할 거라는 모형을 설정하고 정적인 상관관계를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지각은 자신의 부모의 관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어른들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 것이므로 적응 유연성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 등 실제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사회적 유능감과 자신에 대한 인식, 목표의식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재혼에 관한 지각과 이혼에 관한 지각 간에도 순상관성이 있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고, 목표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으며 목표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혼 및 재혼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이론적, 실천적 자료로 제시할 수 있겠다.

아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은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편부모가정자녀나 계부모가정자녀에게 있어 학교 교사의 관심과 배려는 아동의 일탈행위나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환경 자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관심은 입시교육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환경은 자연히 통제와 억압적 분위기,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보다 선택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선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혼가정자녀 또는 편부모가정 자녀, 재혼가정자녀들의 부적응의 원인을 가정적인 결손만으로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변화된 가정환경과 더불어 결손가정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또래나 교사로부터 낙인까지도 경험한다면 일탈과 같은 부적응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편부모가정, 계부모가정자녀일수록 주변사람들의 시선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 교사나 지역사회 정신전문요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다양한 개별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이혼·재혼을 가족구조의 변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편부모, 계부모 가정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낙인과정을 이해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 정신전문요원이 부모나 가족의 대체 자원으로써 또래집단과 학교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효율적인 대화 방식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위험 환경 속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상담교사와 지역사회 정신전문요원의 역할로 기대된다. 최근 이혼가정 아동

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선진국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시발점(정문자, 김은영, 2005; 주소희, 2002)에 이르고 있는데,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를 회피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서와 교육 환경에 알맞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학교라는 장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치는 발달의 장으로서 결손가정이라는 낙인 없이 변화된 가족구조 환경을 받아들임으로써 부적응으로 인한 위험행동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편부모 가정자녀, 계부모가정자녀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교사들의 실천 활동에 이론적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적응 유연성 정도를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보고 아동의 적응 유연성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혼과 재혼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실제적, 교육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경기도 일 지역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 3곳에서 아동 5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으로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과 t-test, Duncan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가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고 6학년이 4, 5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지각 경향을 보였다($F=5.42, p=.005$). 또한 하위영역인 사랑, 이혼시기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경제력, 사랑, 전체적인 이혼지각에 대해 다르게 지각하였다. 하위 영역의 순위로는 남녀 모두 사랑($2.25\pm.61, 2.40\pm.64$), 또래관계($2.00\pm.48, 2.06\pm.52$), 이혼시기($1.84\pm.54, 1.74\pm.57$), 자녀유무($1.72\pm.52, 1.71\pm.59$) 경제력 영역($1.72\pm.41, 1.68\pm.42$) 순으로 긍정적인 지각을 나타내어 사랑이 없을 경우에 대한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하나, 남성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2. 재혼에 대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t=-2.85, p=.005$), 학년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재혼 지각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유무($F=4.29, p=.014$), 경제력 영역($F=3.86, p=.022$)에서는 지각차이가 있었다. 즉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자녀가 있을 경우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하였으며, 경제력 해결을 위한 재혼에 대해 5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재혼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남성의 재혼($t=-3.35, p=.001$)과 여성의 재혼($t=-3.49, p=.001$)에 대해 공통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 재혼의 하위영역에서는 자녀유무, 사랑, 또래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인 지각을 한 반면, 여성의 재혼에 대해서는 자녀유무, 사랑, 또래관계, 편견 영역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긍정적인 지각경향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재혼($2.09 \pm .25$)보다 남성의 재혼($2.23 \pm .28$)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3. 아동의 적응 유연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t=-5.27, p=.000$),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F=6.55, p=.002$). 하위영역인 사회적 유능감($t=-6.07, p=.000$), 자신에 대한 인식($t=-2.22, p=.027$), 목표의식 영역($t=-4.14, p=.000$)에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한 인식($F=9.66, p=.000$)과 목표의식($F=3.02, p=.04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4.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적응 유연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성별, 학년에 따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적응 유연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해져 가는 이혼가정과 재혼가족을 위해 특히 그 안에서 적응이 요구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상담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담당자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학교보건사업 담당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도 일 지역 초등학교를 임의표집하여 횡단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확대해석하기 어렵고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인 적응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향후 실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을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부모의 이혼 및 재혼후의 적응과 관련한 경험을 분석해보고 그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다양한 변인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단적인 연구

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및 재혼 가정 자녀와 부모들의 보호요인을 강화시켜 적응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세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고성혜, 한유진 (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 연구*, 20, 60-73.

공인숙, 유안진 (1994). 전래동화와 대학생의 편견 형성 판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10.

권영숙 (2002).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인성특성과 학교생활의 적응관계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예리 (2002). *비이혼가정 자녀의 이혼지각 및 또래애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계행 (1991). *이혼에 관한 문헌적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영옥, 김재한 (2003). 알코올 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 적응 유연성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0(1), 199-221.

박지아, 유성경 (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5(4), 765-778.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연구*, 11, 23-52.

박현선 (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41, 147-172.

박찬미, 서병숙 (1987).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45-162.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지영 (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은순 (1997). *이혼가정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가효 (1994).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27-144.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 서울: 한국교육학회.

유영주, 강희중, 김밀양, 김순기, 김연, 박정희, 배선희, 손정영, 안재희, 양순미, 오윤자, 이인수, 이정연, 이창수, 전영자, 최희진, 홍성례, 홍숙자 (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이동원 (1981). 도시가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노총, 39.

전숙영 (1996). 이혼·재혼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문자, 김은영 (2005). 이혼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3(3), 108-119.

정진영 (1992). 이혼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2회 학술대회 자료.

조연제 (2003). 이혼과 재혼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경향. 전주대학교 국제상당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소희 (1991). 이혼가정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소희 (2002). 이혼가정 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77-106.

주소희 (2003).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행동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179-210.

통계청 (2005). 2004년 혼인·이혼 통계결과(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Alternative family forms. In family Science,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471-474.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 :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8).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Wallerstein J. S., & Kelly, J. B. (1980). *Surviving the breakup :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 : Basic Book.

- Abstract -

Key concept : divorce, remarriage, resilience,
child

A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for Divorce · Remarriage and Resilience

Shin, Seong Hee* · Kim, Yoon H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observe the children's perception for divorce · remarriage and resilience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school grades so that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resilience and the perception for parents' divorce and remarriage could be established theoretically, practically and educationally. The subjects were 537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ere in 4, 5, 6 grades, The data was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socio-demographics and children's perceptions for divorce · remarriage and resilience. The data from this research were analyzed by using SA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1. The female students had the positive perceptions about divorce even if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e more optimistic ideas towards divorce also apply to the higher grade students rather than the lower grade ones.
2. The female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perceptions for remarriage more than the male di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eneral idea about remarriage according to the school grades, but in terms of the absence of children and the financial status, th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3. The students' resilience was higher in the females rather than in the males and became lower with the grade.
4. There were no relations between divorce · remarriage and children's resilience degrees.

As mentioned above, the students' perceptions for divorce · remarriage and resilience expressed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s and school grade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counselling and developing the programs for the families which experience divorce and remarriag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Seong 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312 Fax: +82-2-961-9398
E-mail: ojackey@lycos.co.kr